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구축 방안 모색」 간담회

우리 농산물 신뢰 저하 ‘먹거리 확보’ 곤란

‘소비자의 안전성개념 전환· 안전사용기준 준수’ 신뢰확보 관건
정부 예산지원· 언론의 공정보도 전제돼야 올바른 인식 확산 가능

- 홍보부 -

우리 농산물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절대적인 안전성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생산자가 불량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변칙 판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먹거리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과 일반재배자 위축, 특정농산물 재배 기반 위축 또는 몰락, 안전 먹거리 확보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 같은 결과는 농약공업협회가 지난 11월 6

일,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사용이 아직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원인을 심층 분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자단체 및 연구·지도기관, 업계 등의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도출해낸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홍보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비자가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와 대중의 지나친 민감 반응 분위기에 편승하며 기사검증이 되지 않은 언론의 히트 보도, 홍보부족 등으로 소비자는 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결국 안전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최근 조사된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1농약오염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농산물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전체 5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82.9%가 불안하다고 답한 외국농산물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를 보면 부적합률이 2000년도에 1.2%, 2001년도에 1.1%로 나타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은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결과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안심리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데이터인 셈이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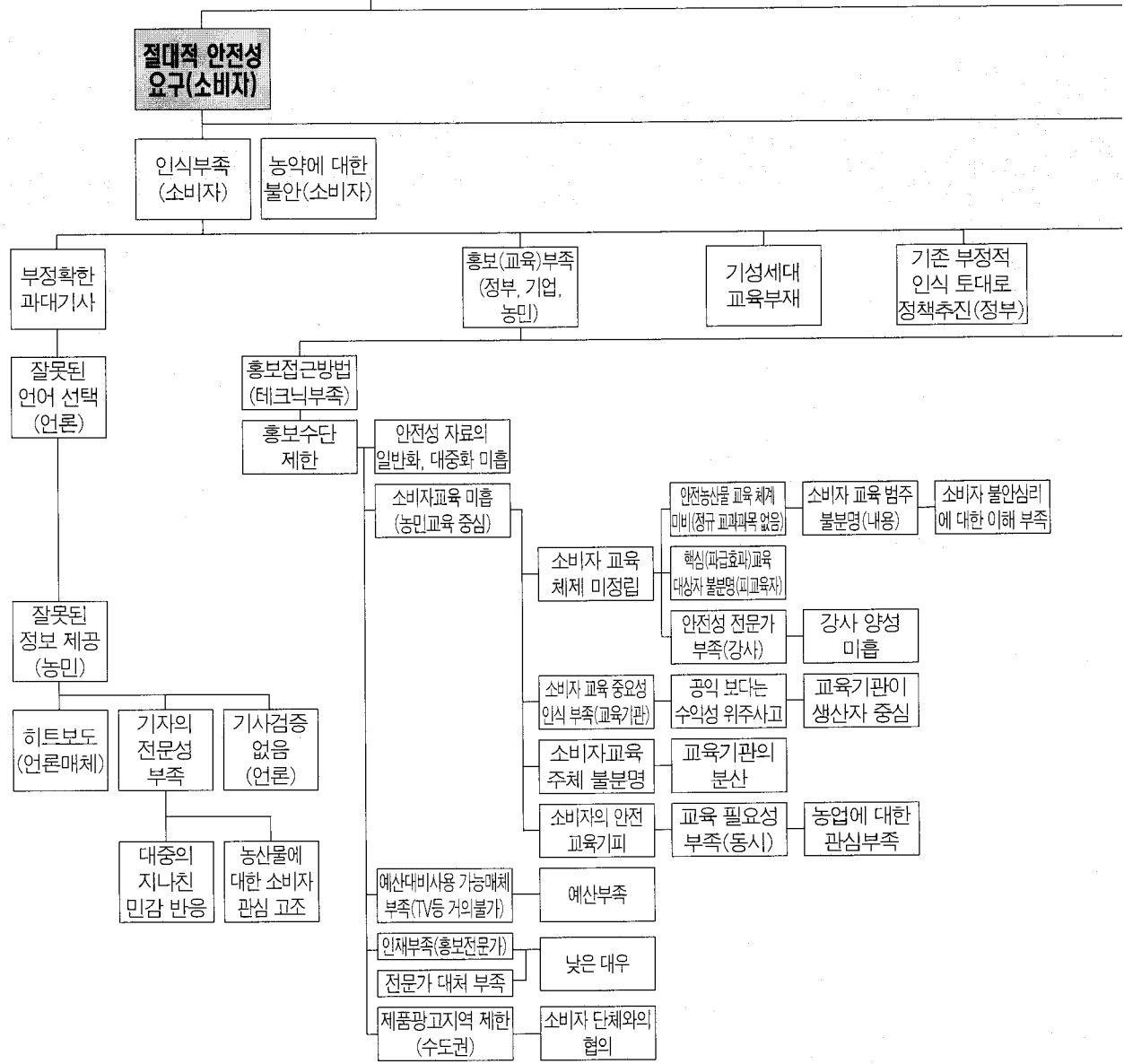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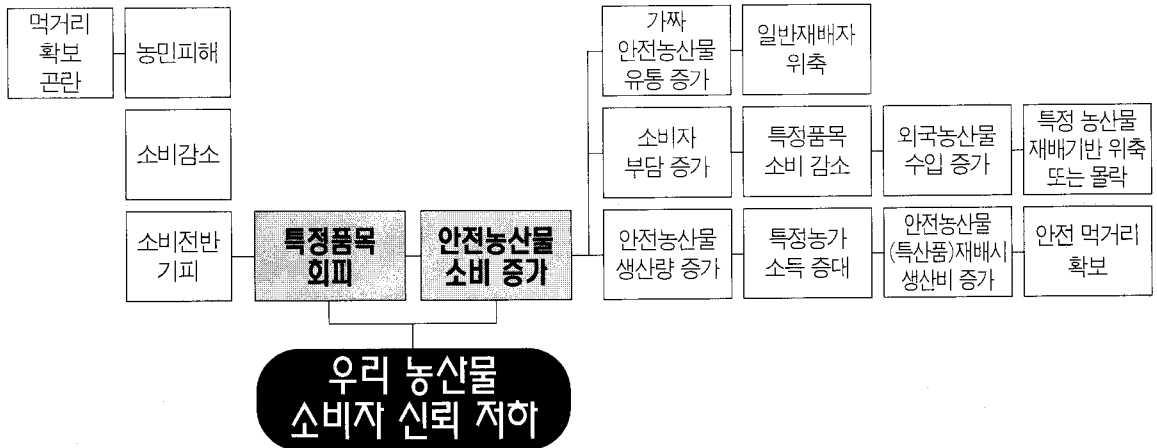
또 농가들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이유로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과 안전성보다는 품질위주 생산,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결여, 일부 농가의 양심결여, 전문성 부족, 농자재기술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불량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산물 품질관리 미흡을 지적했으며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유통과정 관리 미흡, 유통종사자교육 부족, 유통업자의 품질인식 부족, 부정농산물 유통 등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변칙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농산물의 신뢰 저하 원인 중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소비자대상 홍보비 부족과 홍보 기획 부족, 테크닉 부족 등 홍보접근 방법 미흡, 폭로성 보도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지적한 정부, 기업, 농민의 홍보부족 부분이다. 특히 홍보비 부족 이유로는 정부예산 부족과 사업자의 농산물 홍보비용부담 미흡, 농약기업 및 농가의 영세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정부 및 언론의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과 정책의지 부족, 농업전문지에 대한 불신 등이 어우러져 홍보기획 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테크닉 부족 등 홍보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성 자료의 일반화 및 대중화 미흡과 소비자교육 미흡, 예산대비 사용매체 부족, 홍보전문가 부족, 제품광고지역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소비자교육 미흡 이유로는 소비자교육체제 미흡과 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족, 소비자교육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소비자 자신의 안전교육 기피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농약관련기업은 물론이고 생산자인 농민과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발맞추어 나갈 때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농업경시 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서도 보다 자극적이고 히트성, 폭로성 보도보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선택 및 농업면의 배정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구축 방안 모색」 간담회

